아동폭력 없는 세상 위한 불교계 發願

조계종부산聯,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 강연

아동학대 예방 나선 불교계
한국학대예방협과 MOU 체결
"대사회적 역할" 긍정적 평가
학대 피해아동 치료법 전수도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강연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 를 진행했다.

잔혹한 학대로 아동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영이 사건 이후, 최근 또 하나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5살 아동이 친모의 내연남인 2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으며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존재할 또 다른 원영이를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부산조계종聯)는 6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어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은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 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신의진 회장은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하며 "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얼굴은 꼭 시리아 내전에서 봤던 알레포 소년의 사진처럼 멍하다"며 "극도의 공포는 아이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현실감 없고 세상을 다르게 인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한 가정폭력 사례를 들었다. 신 회장은 "가정폭력을 당했던 한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웃으며 지나가던 또래의 여자아이를 찔러 죽였다. 자신은 폭력을 당하고 사는데 행복한 아이를 보니 순간 억제가 안됐던 것"이라며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를 위해 △안전 확보와 보호 △의학적 치료 △각종심리치료 예술치료 EMDR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 시스템"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참가자는 아동을 성폭행하는 남성들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신 회장은 "아동성애자 혹은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뷰 사례들을 근거로 검토했을 때 그들의 특징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다"며 "열등감이 마음 깊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 아이의 사례를 들어 "어릴 때는 심각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는데 지금 청소년이 되어선 (성매매로)돈을 벌기 위해 근친성폭력 주범인 아버지를 찾아간다"며 "그 학생에 대한 치료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청소년이 되어 성폭력을 했던 당사자에게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치료를 추천했다.

강연장에는 일반 불자 뿐 아니라 아동센터복지사들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및 상담심리사 등 300여명이 찾아 자리를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해했다.

강미라(48 · 금정구) 씨는 "강연 중에 질의응답을 통해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됐고 학대 아동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 알게 됐다"고 했다. 김소례(68 · 서구 서대신동) 씨는 "집에 손자도 있어서 '애착' 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불교의 사회참여역할을 반기는 불자들도 있었다. 최미진(56 · 구서동) 씨는 "사실 불교에서는 기도하고 수행은 하지만 사회문제에 깊이 개입되는 부분이 약하다"며 "특히 학대 아동은 부처님의 자비로써 반드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는 사회 속 불교역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너무나 반갑다"고 말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의 대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은 한 가정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다. 학대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지율 스님 "자연, 미래세대 위한 것"

천성산 내원사 · 부산 대명여고, 환경보호 위한 협약식



대명여고 학생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축제' 를 개최했다. 이날 내원사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대명여고를 방문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천성산 내원사와 부산 대명여고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명여고는 6월 2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자연보호 및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천성산 내원사(주지 진성)와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이날 직접 참여해 환경은 미래자손을 위한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강조했다.

지율 스님은 "자연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할 것"이라며 "아직도 천성산은 경제 개발의지 아래 난개발 상황에 놓여있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내원사는 앞으로 대명여고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지도하고 학생들을 위해 산문을 연다. 안거철을 피해 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및 생태답사 등 자연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현재 지율 스님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양산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부산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초록환경학교 궁금이 기자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대명여고는 환경축제를 24년 동안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이 있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박중록 생물 교사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서 활동하며 지율 스님을 돕고 있다. 이번 환경축제에서 대명여고 학생들은 '뉴 코리아 위드 네이처!(NEW KOREA WITH NATURE!)' 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운동장에 새겼다. 또한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으로 환경 관련 정보를 얻었으며 OX 퀴즈 등을 통해 미세먼지, 원자력 등 현재 예민한 환경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환경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송은(2년) 학생은 "미세먼지와 원자력 내용 살펴보며 심각성을 알았다"며 "오늘 지율 스님을 처음 뵈었는데 앞으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고 내원사도 방문할 수 있다하니 들뜬다"고 말했다. 박소은(3년) 학생은 "동아리 친구들과 일반 면 마스크에 먼지가 통과되는 것을 보여주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실험을 실시했다"며 "자연이 파괴됐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중록 선생님은 "사찰하고 자매결연한 적이 없었다.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내원사와 협약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4천여 부산시민, 그리고 글짓고 행복 UP!

BBS부산,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3일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에서 '제2회 부산 문예 창작마당' 을 개최했다. 〈사진〉 문예창작마당은 참가자들의 열띤 성원으로 3000명 선착순 마감이 접수 당일 30분 만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일에는 총 4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며 그림 그리기, 글짓기, 사진찍기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했다.

사장 수불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심성을 순화하고 잠재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꿈과 희망을 증대시키고자 개최했다"며 "매년 발전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제27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27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했다. 〈사진〉 홍법사는 이 행사를 통해 매년 한국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뜻을 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6 · 25전쟁 때 대구 기지에서 활동하며 100회 출격했던 美 공군 조종사 유진 메클링을 초대했다. 유진 메클링은 64년 만에 방한해 한국인들에게 감격의 인사를 전했다. 유진 메클링은 "전우들과 함께 지켰던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감동했고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관정대사 10주기 다례재 및 보리수 축제



경남 고성군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6월 4일 서방사에서 관정대사 10주기 다례재 및 산사음악회, 제7회 보리수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천은사 은선 스님, 옥천사 지성 스님, 고성사암연합회 옥천사 주지 원각 스님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천은사 은선 스님은 발원문에서 "널리 모든 사람의 참빛이 되어 정법으로 인도해 광명국토를 이룩하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기를 원한다. 불자가 하는 일마다 큰 서원 원만성취하길 바란다.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고운사, 하안거 결계 및 보살법회



고운사는 2017년 하안거 결계 및 포살법회를 6월 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모인 300여 스님들은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을 증명법사로 〈범망경보살계포살본〉 전권을 독송하며 포살법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포살은 승가의 구성원인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계를 다지고, 청정한 계율로 승풍을 진작해 수행정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또 등오 스님은 "오늘이 헛되지 않아야 내일도 헛되지 않다. 하루하루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면발광 LED 인등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위패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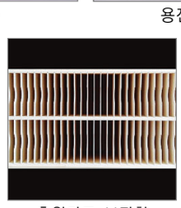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